

동국불교미술인회 전시회

치 사

하늘 높고 청명한 풍요의 계절 가을에 동국불교미술인회의 아홉 번째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여 불교미술장르를 확립하고 한국불교미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온 세계에 인지도시켰다는 사명감으로 창단된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대부분이 우리 종단에서 개최하고 있는 불교미술대전을 통하여 등용된 작가들이라 더욱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본 작품 이외에 기증 작품을 함께 출품하여 판매대금을 본 종단의 기부단체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열리는 전시회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였던 우리민족은 부처님성상을 조각하고, 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공예품을 만들면서 우리의 고유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함께 발전해 온 불교문화는 예술적 감흥을 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불법을 널리 쉽게 홍보하는 포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미술이라는 가교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사부대중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불법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던 불교예술품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멋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 최고 기량을 지닌 불교 미술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불교미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을 조명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려는 동국불교미술인들이 그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더욱 꽃피워주길 기대합니다.

현실적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불모의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김의식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불기 2554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